



독일 프로축구 바이어 레버쿠젠 선수들이 19일(한국시간) 분데스리가 시상식 단상에서 우승컵을 치켜들며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NBA 댈러스 2년 만에 서부 콘퍼런스 결승행

미국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가 17점 차 열세를 뒤집고 2년 만에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다시 올랐다.

댈러스는 19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2023-24 NBA 플레이오프(PO) 서부 콘퍼런스 2라운드(7전 4승제) 6차전 홈 경기에서 서부 1위인 돌풍의 오클라호마시티 선더를 117-116으로 꺾었다.

4승 2패로 시리즈를 통과한 댈러스는 2021-22시즌 이후 2년 만에 다시 서부 콘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

정규리그에서 50승 32패를 기록해 서부 5위에 오른 댈러스는 오클라호마시티(57승 25패)를 상대로 1점 차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미 프로농구(NBA) 댈러스 매버릭스의 간판스타 루카 돈치치(가운데)가 19일(한국시간) 오클라호마시티와의 서부 콘퍼런스 2라운드 6차전에서 수비를 높고 골밑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경기 종료 20초를 남기고 오클라호마시티의 헛 흥그레에게 덩크슛을 내줘 115-116으로 역전 당한 댈러스는 종료 2.5초 전에 P.J. 워싱턴이 3점슛 동작 중에 반칙을 얻어 자유투 3개 기회를 잡았다.

댈러스는 3쿼터 중반 60-77로 17점이 나 끌려갔으나 루카 돈치치가 29점, 10 어시스트, 10리바운드로 트리플더블을 달성하고, 카이리 어빙과 데릭 존스 주니어가 나란히 22점씩 보텐 덕분에 역전승을 일궈냈다.

댈러스는 2021-22시즌 서부 결승에서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1승 4패로 졌다. 댈러스의 최근 챔피언결정전 진출은 우승을 차지한 2010-11시즌이다.

서부 1위로 정규리그를 마쳐 이번을 일으킨 돌풍의 오클라호마시티는 사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36점을 넣으며 분전했으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레버쿠젠 무패 우승... 분데스리가 '신화' 썼다

28승 6무... 120년 만의 첫 우승 감격

독일 프로축구 바이어 레버쿠젠이 역사적인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사상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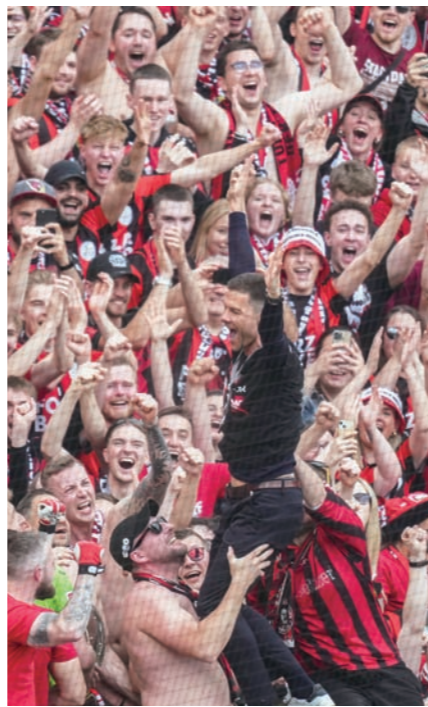
스페인 출신의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휘하는 레버쿠젠은 19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끝난 2023-24 시즌 분데스리가 최종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2-1로 꺾었다.

이미 지난달 29라운드에서 1904년 창단 이후 120년 만의 분데스리가 우승을 확정지은 레버쿠젠은 이날 최종전 승리로 28승 6무(승점 90)를 기록,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을 달성했다. 리그 34경기과 컵대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 리그(UEL) 등 이번 시즌 51경기 동안 단 한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경우는 레버쿠젠이 역대 처음이다. 빅 클럽 리버풀(잉글랜드)과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등지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했던 알론소(43) 감독은 2022년 10월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으면서 팀의 체질을 바꿔놓았다.

2년도 채 안돼 기념비적인 성과를 거둔 알론소 감독의 강점은 선수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심어준다는 점이다. 리그 우승은 물론 경기 막판에 이루어진 '극장골'들에서도 드러났다. 바이에른 뮌헨과 리버풀, 바르셀로나 등 빅클럽들은 떠오르는 명장이 된 알론소의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는 2024-25시즌 잔류를 선언했다.

무패 우승은 유럽 5대 빅리그를 놓고 봐



분데스리가 바이어 레버쿠젠이 19일(한국시간) 우승을 달성하자 사비 알론소(검은색 옷) 레버쿠젠 감독이 관중석에 올라 팬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연합뉴스

도 매우 어렵고 귀한 기록이다. 한 시즌 팀당 30경기 이상을 치르게 된 이래 한 번도 안 지고 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은 1991-92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 AC밀란(22승 12무)부터 2003-04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 아스널, 2011-12시즌 세리에A 유벤투스(23승 15무)까지 단 세 팀밖에 없었다. 올 시즌 레버쿠젠이 네 번째로 이 반열에 올랐다.

지금까지 분데스리가에서 무패 우승을 달성한 팀은 없었다. 지난 시즌까지 11회 연속 우승한 '거함' 뮌헨도 무패 우승한 적은 없었다. 가장 근접했던 게 뮌헨의 2012-13시즌이었다. 당시 29승 4무를 기록했지만 레버쿠젠에 한 번 겨 무패 우승은 무산됐다.

레버쿠젠은 1904년 7일 제약회사 바이엘의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창단한 기업구단이다. 무려 5차례(1996-97, 1998-99, 1999-00, 2001-02, 2010-11)나 준우승에 그치면서 '네커쿠젠(Neekerusen)'이라는 치욕적인 별명이 붙기도 했으나 올 시즌 불명예를 한방에 날려버렸다.

그러나 레버쿠젠의 도전은 아직 진행형이다. 23일에는 아탈란타(이탈리아)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UEL) 결승을, 26일에는 카이저슬라우테른을 상대로 독일축구협회(DFB)-포칼 결승을 잇달아 치른다. 우승컵 2개를 추가한다면 전무한 무패 트레블(3관왕)을 이룬다.

이날 레버쿠젠은 전반 12분 만에 상대 골키퍼 실수를 틈탄 빅터 보니페이스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전반 27분에는 로베르트 안드리히의 절묘한 백점 득점까지 터지면서 2-0까지 앞서나갔고, 후반 17분 추격골을 내줬으나 더는 실점하지 않고 무패 우승을 확정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세계 1위 시비용테크...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테니스 우승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단식 세계 랭킹 1위 이가 시비용테크(폴란드)가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총상금 479만 1105유로)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시비용테크는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아리나 사발렌카(2위 벨라루스)를 2-0(6-2, 6-3)으로 가볍게 제압했다. 이로써 시비용테크는

이달 초 마드리드오픈에 이어 올해 네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이 대회 우승 상금은 69만9690유로(약 10억3000만 원)다. 이달 말 개막하는 그랜드슬램 대회인 프

랑스오픈을 앞두고 시비용테크는 2013년 세리나 윌리엄스(은퇴·미국) 이후 11년 만에 마드리드오픈과 BNL 이탈리아 인터내셔널 단식을 연달아 제패한 선수가 됐다.



클레이코트에 강한 시비용테크는 프랑스 오픈에서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 2023년까지 세 번 우승했다. 스키아데탈라-연합뉴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WANNA RISE?

ALCOBAÇA Stream

DOUBLE WAVE

WANNA SPIN?

Ray SX-ZERO

RomaRo

(주)유니스골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89-5 인스코빌딩 문의전화 031)726-0085